

2009.2.8 당회결의사항

-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2명)으로 장일형장로, 김한중 장로, 정요섭목사를 선정
하다.(동의:김창안장로, 재청:김용일장로)
- 2) 길가에교회 사택보증금(1천만원) 반환 1년 연기 요청을 허락하기로 하다(동
의:김용일장로, 재청:김한중장로)
- 3) 당회 회의내용 녹음기록 운영관리준칙안을 검토후 추후 결의하기로 하다
- 4) 교회홈페이지를 개선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개선안을 다음에 보고받고 세부
안을 결의하기로 하다.(동의:엄주청장로, 재청:조원호장로)
- 5) 추가예산신청 및 관리에 관한 지침안을 보류하다.
장학위원회비로 일괄 계상된 장학금(276,000천원)을 집행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사무국 소관으로 책정된금액(87,600천원)을 별도로 분
리하기로 하다.
- 6) 정신여중고에 보급하는 성경책에 대한 학교 측 협조요청을 허락하기로하고
정신학원협력위 원회를 통하여 집행하기로하다.(동의:박대길장로 재청:조성
득장로)
- 7) 선교사역본부의 추가 예산안(협력선교사지원 4,800불, 농어촌 20개교회정

- 기지원 29,400,000원, 도시개척교회 10개교회지원 16,400,000원, 다문
화가정어린이돌봄교육 5,000,000원, 멘토링사역 1,000,000원)을 허락하
기로하다.(동의:선교사역본부, 재청:박대길장로)
- 8) 복지사역본부의 마이크로크레딧 추진을 위한 추가 예산안(5천1백만원) 건을
과반수 미달로 부결하다.
- 9) 000 가정의 재활을 위하여 월 20만원 3년지원액 총 720만원을 지원하기
로 하다.
- 10) 사무국의 지하주차장변경, 녹음스튜디오설치, CCTV추가설치(16대), 창문
블라인드교체안은 다음 당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 11) 사무국의 교적,재정(경리),현금 통합관리프로그램 구입, 운영을 추진하기로
하다.
- 12) 정신학원 이사회의 이사장 피선에 수락하기로 하다.(2.15 임시당회 결의)

기록. 김현덕 당회 서기장로

2009. 제직사역조직

- 공동의회 의장 : 박원호목사 서기 : 김현덕 장로
- 당 회 당회장 : 박원호목사 서기 : 김현덕 장로
- 당 회 제 직 회/ 의장 : 박원호목사 /제 직 회 서 기 : 정재훈안수집사

A.선교사역본부 본부위원: 박호길 조원호장로 교역자: 배현성목사

사역 팀		2009 부서장	교역자
전문인 선교팀	미술팀	신명식	배현성 유기영
	의료팀	박일영	
	법조팀	임병일	
비전트립팀		권순영	
선교사 지원팀		황의완	
주한 외국인 선교팀		김두용	
동남아 선교팀		변춘석	
북한 선교팀		김광일	
농어촌교회 사역팀		홍운식	
도시 개척교회 사역팀		이원철	
군,경 선교팀		최경호	
선교사 중보팀		이병직	
선교 행정팀		손영익	
엠마우스팀 : 전도팀		정연희	
교정선교팀 : PFK		이창성	
중앙아시아 선교팀		이문영	

B.복지사역본부 본부위원: 엄주청 장일형장로 교역자: 신화식목사

사역 팀	2009 부서장	교역자
하프타임 사역팀	박홍현	신 화 식
환경 사역팀	김홍용	
호스피스 사역팀	김영희	
전화상담 사역팀	김연희	
복지 사역팀	김동익	
장애인 사역팀	최성준	
기관 사역팀	유정식	
구제 사역팀	박재준	
꿈나무 사역팀	김고미	
함사랑 기금팀	송행근	
복지기획 행정팀	정원영	
사랑나무	신형섭/이기원	유성훈

C.예배사역본부

본부위원: 이영자 조성득장로 교역자: 이 호 목사

사역팀	2009부서장	교역자
예배부	조선연	이 호
안내부	김성구	
새벽기도 사역팀	최종명	
1부 / 호산나 찬양대	공진권	
2부 / 시온 찬양대	박인호	
3부 / 살롬 찬양대	최영배	
4부 / 임마누엘 찬양대	김익환	
남성 찬양대	박동수	
성극팀	김해기	박혜성
주오챔버 오케스트라	조병길	
세례 사역팀	고한규	
통역 사역팀	나혜원	나현수
할렐루야 찬양팀	전진희	
영어예배 사역팀		

D. 봉사사역본부

본부위원: 김창안 김한종 교역자: 유기영목사

사역팀	2009 부서장	교역자
봉사부	(남)강진식 (여)박혜진	유기영
주방부	(전반)은영희 (후반)김설희	
주차안내부	최재규	
자원봉사연결팀	김유호	
שלמחןמולגת	이은우	
서점사역팀	김윤희	
도서실사역팀	최정숙	
결혼안내팀	조현숙 이승주	
방송사역팀	남성엽	
사진사역팀	김은성	

E. 소그룹제자화사업본부

본부위원: 최상인장로 교역자: 이강찬목사

사역팀	2009 부서장	교역자
새가족사역팀	동현수	유기영
가정사역팀		공광승
양육사역팀	최재경	정요섭
중보기도사역팀	장계영	박혜성
소그룹사역팀	신영숙	이강찬
제자훈련사역팀		
12단계사역팀	이동희	김주형

F.어린이사역본부

본부위원: 이지화 박종규장로 교역자: 정요섭목사

사 역 팀	2009부서장 / 지도권사	교역자
어린이 정원	김진숙 / 김순희	전은숙
아기부	서금란 / 고정순	
영아 1부	김향순 / 김현진	최민혜
영아 2부	장혜경 / 김미자	
유아 1부	유영옥 / 오정덕	김수연
유아 2부	최정윤 / 오영숙	
유치 1부	권이홍 / 강혜선	전재표
유치 2부	강응순 / 신명식	
유년 1부	이동숙 / 권승님	윤대운
유년 2부	박기운 / 이경자	
초등 1부	김성윤 / 문현주	최 락
초등 2부	권순영 / 김화자	
소년 1부	황남호 / 이희순	이선림
소년 2부	이 열 / 강정녀	
교육지원부	김영림	정요섭

G. 청소년사역본부

본부위원: 김성배 박대길장로 교역자: 박혜성목사

사역 부서	2009 부서장	교역자
청소년사역원	김성배	박혜성
중등부	지호선	임경순
고등부	김낙균	김주형
학원선교팀	김영숙	박혜성
반가운학교	이종은	박혜성
유소년축구팀	이용수	박혜성
AWANA(어린이/중등부)	/ 김기선	유영안 / 박요한
청소년사역지원팀	홍기협	박혜성

H. 젊은이사업본부

본부위원: 김양자 신정웅장로 교역자: 공광승목사

사역팀	2009 부서장	교역자
청년 1부	이승일	서재욱
청년 2부	정종국	고윤석
청년 3부	윤의탁	공광승
30 CUP	김병연	주선영
젊은이 지원팀	정재훈	공광승

1. 사역위원회

본부위원: 김양자 신정웅장로 교역자: 공광승목사

사역팀	2009년 위원
재정 위원회	김완중 계수부 : 김창균 경리부 : 문완홍
예산 위원회	당회장 당회서기 김재현(예산), 김완중(재정), 신정웅(감사), 박종규
장학 위원회	당회장 당회서기 박호길 김재현 김창안 장일형 문창복
인사 위원회	당회장 당회서기 이지화 김양자 김용일
행정장정 위원회	당회장 당회서기 엄주청 김완중 우동윤(선임목사) 권오승
감사 위원회	신정웅(실무 : 손철규)
사무국운영 위원회	당회장 당회서기 김한중 박종규 조성득 김동근(사무장) 정규창
목회 위원회	김현덕 신정웅 노봉옥 이병식
선거관리 위원회	김양자 김용일 김한중 장일형 우동윤 정요섭
역사자료보존위원회	장로 : 조원호, 교역자 : 우동윤, 김경신
중장기기획위원회	당회장 당회서기 김완중 김재현 이지화 신정웅 박대길 우동윤 동현수 김성윤 유재건 윤용석 홍기협 김유경 홍근용 양동훈
정신학원협력위원회	당회장 당회서기 김완중 김성배 조원호(중) 김용일(고) 박대길 우동윤 박혜성(부목1) 김동근(사무장) 김도목
홈페이지관리위원회	위원 : 엄주청 조성득, 교역자 : 나현수, 윤의탁 남성엽 한윤경
홍보출판 위원회	당회장, 김창안 우동윤 김주형 부장 : 임경수 간사: 김세나
상례 위원회	당회서기, 팀장 : 최종명장로피택자, 조명희권사 김동근(사무장) 정양재 김영중 김홍용 최오섭 계학용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위원회	위원장 : 김용일장로, 홍근용 교역자 : 이강찬

1.교구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 구	장 로	권 사	안수집사
1 교구	장일형	남현숙	김은성
2 교구	김양자	박경옥	장득순
3 교구	박종규	이영남	지호선
4 교구	신정웅	우일강	왕승근
5 교구	김용일	오점덕	박동수
6 교구	이영자	이경희	지유철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
니라

-요한복음 14:6

통 권 _ 제 243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8년 2월 22일

함즐함울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주님의교회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에 초대합니다! (2009.2.28~4.12)



사진. 서정하, 노수연 집사



지난 해 10월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에 소집되어 행사 계획을 기안하던 당시...전 세계 1,500여개의 교회에서 이 행사를 진행했었고,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들 하는데 우리 주님의교회는 뭘 어찌해야 할지..교우들이 적극 참여를 할지, 우리의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두려움과 의구심으로 5개월을 준비하고, 드디어 2월 28일 개회예배로 PD 40일 캠페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박원호 목사님께서 목회 비전으로 말씀 하셨던, 한 축으로는 [12단계 성경공부를 통해 바른 믿음을

주님의교회 교우들 모두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 기초를 쌓고, 또 다른 한 축은 [소그룹 모임]으로 성도들 각자의 삶을 세심하게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 하면서 각자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알곡 교인들이 되어 우리 주님의교회를 세계로 나가는 교회의 표본이 되자는 비전을 듣고 벅찬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준비위원들은 매주 토요일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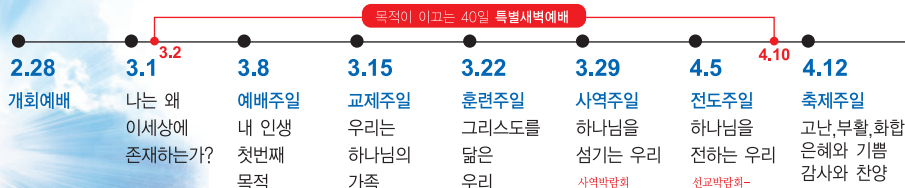
벽 6시마다 회의를, 어떤 날은 밤 12시 넘어 까지 강행된 회의로 피곤하기도 하였지만, 6주간의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금번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통해 주님의교회 교우들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바르게 깨달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현수 안수집사 (PD 40 준비위 총괄행정팀)

2009.2.28~4.12

목적이이끄는
40일



캠페인 일정

담임목사 신년 대담 2,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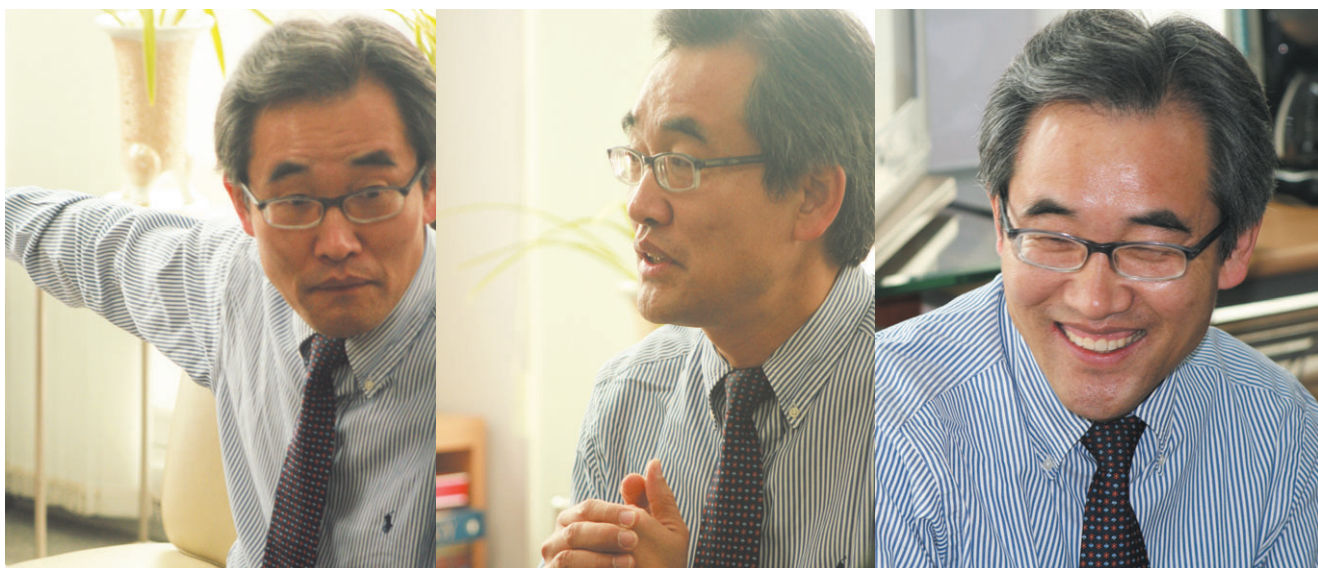
새 교역자 소개 3면

2009.2 당회보고 5면

2009, 제직사역조직 5, 6면

2009년 박원호 담임목사님과 함께 하는 **신년** 대담

“평생 함께 하고싶은 분들이 자꾸자꾸 많아집니다”



올해는 특별히 어려운 해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교우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소망을 잃지 않고 작년에 도약이란 주제를 정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도약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김현덕 장로: 담임목사님 주님의교회에 부임 하셔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일 좋았던 점과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신지요.

A. 좋았던 점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소망이 교우들과 잘 어우러졌다는 점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처음에 와서 말씀드릴 때에 우리 교인들이 알곡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 점이 저에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교회사이즈가 알곡을 만들겠다는 목회와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 내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자꾸자꾸 많아지는구나.'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점은 목회현장이 권력다툼이 점점 심해지는 모습과 분열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돈 문제가 강하게 교회를 붙들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럴때일수록 제 자신도 포함하고 생각 드는 게 재정문제는 엄격해야 합니다.

미국교회는 건강하고 사회능력을 끼치는 교회가 많은데 미국교회에선

돈 문제를 굉장히 엄격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번도 현금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전부 수표를 받거든요 그 수표는 사용내용이 반드시 보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맘대로 쓸 수 없었지요. 반드시 서기 장로나 회계장로님한테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럴 때 일수록 더욱 감사하고 더 바르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Q. 김창안 장로: 뉴스에서 보니 고용보험 기금이 떨어지고

있고, 삶의 내리막길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일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남을 탓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요 '정치가 잘못됐다.' '정부가 잘못됐다.'고 탓하게 되는데 맞는 말이지만, 그러다보면 자꾸 남을 비판하고, 이런 모습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은 고난에 강하거든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반드시 도와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쩌면 너무 물질 중심으로 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그것 때문에 고난이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이며, 이런 기회에 바른 정신의 자세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분명히 좋은 기

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와 교회가 잘 이겨낸다면, 건강한 국가로서 다른 나라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Q. 김창안 장로: 저 역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면 꼭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목사님 역시 힘드시거나 외로울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런 때는 없으신지요.

우선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지내면서 외롭다는 느낌은 못 갖습니다. 책을 읽는 습관 때문에, 어딜 가든지 혼자 있으면 책만 있으면 됩니다. 늘 사역이 있으니까 준비 하느라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외롭다는 생각은 잘 못 갖습니다.

목회에서 힘든 것은 첫째로, 교인들에게 미안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힘든 일이 많습니다. 교인들에게 켈 힘든 것 중 하나가 목회자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면 목회자가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못하니까, 마음이 늘 미안하고, 목회에서 힘든 부분입니다.

둘째로, 힘든 것은 사실 정치 같은 거 잘 못합니다. 제가 운동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게 정공법으로 나가지 편법(꼼수)을 잘못하니까 예를 들어 심판이 아니라고 하면 끝입니다. 교회가 파악이 되고 시작해야하는데 한 2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교회 정치적인 부분을 신경 안 쓰려고 의도적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Q. 박동수 안수집사: 교회와 공생하는 정신학원의 학생들에게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목사님의 프로그램(계획)은 없으신지요.

첫째는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신학원입장에서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커서 이 학교 안에 7~8천명 정도 되는 교회가 들어와 버리면 이 작은 캠퍼스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꽤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건물 하나만 달랑 가지고 있으니 목회의 여러 부분을 포기할게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보통 교감의 위치가 되는 교목을 돕고 협력하는 것과 학생들이 이곳에서 6년을 다니게 되는데 신앙을 잘 키워나가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건, 지난번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화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만 짜여지면, 아이들을 예로 리더 열 명이 또 리더를 키우면 백 명이 금방 됩니다. 백 명의 리더가 있으면 전체 3천명 있는데 쉽게 변합니다. 6년 사이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시간도 들고 돈도 드는 일이지만, 전력을 다해 달라붙어 줘야 합니다. 만약 우리교회가 그것을 만들 수 있다면, 전국에 있는 기독교학교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박동수 안수집사: 최근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한 교회사역을 애쓰고 계신데, 교회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신과 사명이 기쁘고 즐겁도록 참여를 이끄는 목사님의 의견이 무엇인지요.

우선은 전 장소제공자가 아직 마감안했는데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일단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집을 오픈 한다는게 쉽지가 않아요. 또 형편이 어려운 교인들은 오픈 하는게 너무 힘데 제가 자꾸 광고하고 요구하면, 이분들도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그렇더라도 향존직 분들은 해주었음 하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교회의 약점이 헌신이 조금은 약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남선교회가 없는 것과 노회/총회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회를 한번하면 온 교인이 힘써야하고 저절로 헌신이 되고 훈련이 되는데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소그룹모임 하면서 깊이 있게 말씀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것도 큰 목적이요 중간에 사역박람회가 있거든요. 온 교인이 각자의 은사를 찾아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Q. 고선옥 권사: 교회가 커지다 보니 봉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구세대의 눈으로 봐서 인지 모르겠지만, 교회헌금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한 개념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남은 재정으로 쉽게 기념품을 한 다든가. 하나님의 돈을 쓰는 마음, 봉사의 마음이 어떠하여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는 돈 문제 깨끗한 교회입니다.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집행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인터넷으로 올리고, 공동의회를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인들에게 다 공개하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영면에서는 항목별 남은재정이라고 함부로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는 제자프로그램의 내용 또한 재정의 훈련 내용이 참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Q. 김주형 전도사: 시대가 급변하는 가운데 2009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교회 부모들에게 향한 자녀 교육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한 목회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세상을 따라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일류대만이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이 지도자 되기 좋은 활동이 많습니다. 가정과 교회교육만으로도 자녀교육은 훌륭한 리더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든 문화와 특별 활동 등 조건이 좋고, 학교만으로는 만나기가 힘든 전문가를 교회에서는 만나기 쉽습니다. 말씀을 중심에 세워 충실히 교육하며 부모님들에게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임 경수 편집장: 주님의 교회 성도라면 담임목사님의 가정사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가족소개와 사모님과의 결혼

에피소드, 자녀교육, 가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대학교 동기동창으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같은 과 같은 학년으로 운동을 같이 많이 해 왔지요. 탁구, 배구, 테니스 같이 함. 군대 갔다 오니, 아내가 교편을 잡으며 아직 결혼은 안하고 있었습니다. 제대 후 결혼. 처갓집도 장인어른의 큰아들이 신학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나, 목사는 안하시고 교수로 계십니다. 큰 사위인 제가 목회한다고 하니 장인어른 좋아하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둘입니다. 잘 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게 아이들이 3살 때 유학을 떠났고, 유학 후 한국, 다시 아프리카 1년에 있었습니다. 두 자녀모두 고등학교 4개 다녔습니다. 그러나, 감사히 대학 잘 마쳤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 들어가 주었고, 큰 아이는 대학 다니면서 미술을 듣더니 성미에 안 찼던지 마치고, 미술 전문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이번 5월에 졸업하게 됩니다. 둘째는 신학교 졸업 후 목사가 아닌, 불우청소년 돕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불우한 시절을 보냈는지 (웃음) 한국의 시스템이 싫어 어려움 당한 청소년 돕겠다고 말합니다. 둘째가 먼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가 간호원인데, 선교사 딸입니다.

Q. 김현덕 장로: 부부싸움 은 하시는지요. 혹시 하시면 어떻게 해결?

저희도 자주 싸웁니다. 싸우는 데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싸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내가 아플 때 싸웁니다. 자라는 환경이 다른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요. 전 어릴 때 아프면, 어린놈이 아프다고 어른들에게 혼났거든요. 헌데, 우리 아내는 온가족이 힘을 합쳐 병마와 함께 싸워야 한다는 헌신적인 타입입니다. 그러니 부딪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내가 아프면 싸웁니다. 처음엔 아프다고 해도 신경 안 써준다고 싸우고, 나중에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면, 알아서 해줘야지 묻기만 한다고 싸웁니다. (웃음) 자라는 환경이 다른 것 때문에 다투는 게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아내와 함께 보내지 못하는 시간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월요일에 휴식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시간은 아내와의 시간을 위해서 다 비워버립니다. 같이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며,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대화하며, 시간을 갖는 것이 해결 방법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경수 편집장: 2009년 신년 대담에 참여해 주신 각 향존직 대표분들과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취재: 김현덕 장로/ 김창안 장로/ 박동수 안수집사 회장/ 고선옥 권사회장/ 김주형 전도사/ 함즐함울 편집부장 임경수 집사

2009.2.4 조선일보 A12면 발췌

'北 결핵어린이 돕기' 5차분 의약품 보내

"북한에 의약품을 보내는 것은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북한의 환자들이 치료를 통해 건강을 찾아 민족화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3일 오전 11시 부산항 3부두 35번 선석. 축축이 내리는 빗속에 우산을 받쳐 든 북한결핵어린이돕기범국민운동본부(총재 이윤구·이하 운동본

부) 관계자 30여명이 기도를 올렸다.

이날 이들은 북한 나진·선봉지역 결핵환자들을 위한 결핵치료제와 영양제·일반생식제 등 40억원 상당 의약품을 배에 실어 북한으로 보냈다. 작년 3월·7월·9월·12월에 이어 5번째다.

운동본부 김상환 사무총장은 "나진시에만 1만3000여명의 결핵환자

가 있다는 북한 보건성 얘기를 듣고 다시 지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의약품이 3~4일 뒤 북한에 도착하면 30만~4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운동본부는 보고 있다.

발행일: 2009.02.04 / 사회 A12면
기고자: 권경훈



〈사진〉 부산항 3부두 35번 선석, 비내리는 가운데 우산을 받쳐들고 박원호목사(가운데)와 관계자 30여명이 기도를 올렸다.

교회소식

12단계 성경공부 3단계 개강



2009년 1월 4일 [12단계 성경공부] 그 세번째 과정이 시작되었다. 3단계를 시작하는 이번 성경공부는 "구원의 여정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길'에서 '교회의 길'까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결음의 시작과 방향을 말씀을 통해 알아본다. 박원호 담임 목사는 [12단계 성경공부]를 통해 삶에서 사회적 대안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동희집사(0-0)

교사주일

2009년 1월 18일 셋째주일은 주님의



교회에서 교사주일로 지냈다.

4부 예배시간에 모든 교사들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고백문을 낭독과 특별 찬송으로 올 한 해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 나갈것을 다짐하였다.

특순으로 10년, 15년 장기근속 교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박원호 담임목사는 주님의 사랑으로 열정적인 교사의 사역을 감당할수 있도록 축복의 기도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원했다.

주님의교회 성극팀 창립예배

2월 4일(수) 주님의교회 성극팀 창립 예배를 드렸다. 성극을 통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 위해 제직부서 정식 팀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 공연된 '건너가게하소서' 공연으로 많은 맘을 흥린 감격으로 은혜를 받았으며 '목적 이 이끄는 삶' 마지막 부활절 예배에 "십자가의 길"을 공연하며 부활의 주님을 많은 교우들이 다시 생각하게 하기를 원한다 했다.

참석자들은 성극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심에 감사하고 서로 협력하며 이해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렸다.

군 입대 자녀를 둔 부모들의 기도모임

군(경찰 및 공익근무 포함)에 입대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각종 훈련과 교육등 군 복무를 마치고 부모님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 오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모임입니다.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아들의 부대와 지휘관을 위하여, 아들보다 먼저 입대한 선임병(고참병)과 후임병, 그리고 동

료 전우들과의 형제와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모써 아들들이 무사히 제대하기를 바라는 중보기도입니다.

또한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생일 선물보내기, 부대방문(군, 경 선교팀에서 군 부대 세례지원시 동행)등을 합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 자녀 성명, 2.입대 일자, 3.부대주소, 4.부모 성명 및 전화

등을 아래에 적힌 군,경 선교팀에 연락해 주시면 기도모임 시기 및 장소, 시간 등을 결정하여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연락: 최경호 집사 (016.288.4490)

전선재 집사 (010.5087.9133)

최경호 집사(3-20)

“패” 집사
잠실동 이비터오트

여보 만약 우리부부와 시어머니가 뱀놀이 하다가 물에 모두 빠지면 당신은 누구를 먼저 구할꺼야?



그야 당연히 어머니 먼저지
옛말에 부모는 살고 빠지면
아내는 의복과 같다고 하잖아...



이런 남편을 믿고 살고 있다면
천천히 빠져나가는 남편입니다.
어떻게 좋아요 아버지.. 난 못살아요!



술로본 왕과 같은 고심끝에 아버지는
작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당장 수절을 배우거라"



"신앙도 지혜로워야 하는 것!"

환영합니다!
새 교역자 소개

공광승 목사



성도 여러분 문안드립니다 올해 젊은이공동체 담당으로 부임한 공광승

목사입니다 저의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짝지어 준 아내 이명주와 아들 공평(14) 첫째 딸 공경(13) 둘째딸 성경(10)을 자녀로 둔 가정입니다.

젊은이 공동체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커피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일예배는 1시30분 지하 중예배실에서 드리며 청년 새벽기도는 매일6시15분 1층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올해 젊은공동체 비전은 '하나님을 찾는 기쁨을 맛보는 청년'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찾는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유기영 목사



샬롬! 안녕하세요. 주님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유기영 목사입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와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식구는 사랑하는 아내와 씩씩한 아들, 귀여운 딸 이렇게 넷이며, 저는 여러분과 따뜻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제 별명은 이만기, 임격정 목사입니다. 언제든 어려워 마시고, 인사해 주세요.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봉사사역본부와 새가족사역입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성도들이 행복해 하는 교회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주형 전도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김주형 전도사입니다. 주님의교회에서 하

나님을 섬길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 맡은 부서는 12단계와 함울등 담임목사님을 돕는 일과

고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가족은 결혼 3년차에 접어드는 신혼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보내주시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희 가정과 교회의 홍보출판 사역, 고등부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격려와 지지 속에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 전도사



안녕하세요. 주님의교회 어와나 중등부(TREK)을 담당하게 된 박요한

전도사입니다.

저희 TREK은 청소년들을 향한 열정으로 뭉친 선생님들이 인생의 여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배우며 실천하는 부서입니다. 주일 12시가 기다려지는 사모함이 있는 곳, 청소년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함께 뛰어놀며 웃을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주님의교회 TREK입니다. 2009년 TREK의 기초를 하나하나 세워 주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새롭게 오픈하는 만큼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눈물이 함께 필요한 곳입니다.

이선림 전도사

샬롬~이번에 주님의교회에 부임하여 아릅드리 (소년1,2부)를 섬기고 있는 이선림 전도사입니다. 주님의교회 귀한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된 것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릅드리 소년부

는 2009년 'Here I am!'이라는 교육표어를 가지고 한참 사춘기에 접어드는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잘 찾을 수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